

# 진짜사장·진짜교섭

2026. 1. 28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내화조업정비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테크젠

## 원청자본, 한 판 붙자!

5월 금속노조 원청자본 타격투쟁 시작  
6·10 간부상경투쟁에서 7·15 총파업까지  
반드시 진짜 사장 교섭장에 앉힐 것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자본을 상대로 금속노조가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5/12 포스코를 시작으로 5/13 현대모비스, 5/28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을 타격하고 6월 현대제철 규탄 투쟁을 현대차그룹 본사(양재동)에 전개합니다. 원청교섭을 계기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집중사업도 현대중공업 정문 등에서 진행합니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어떤 원청자본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달 지났을 뿐입니다. 자본이 쉽게 끌려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노사 대화 자체도 법이 아닌 투쟁으로 만들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섭위원 출입마저 막는 현대자동차, 일방적으로 사업부 통째를 외국기업에 팔아버리려는 현대모비스, 파견고용이 불법임을 판정받아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현대제철, 현대차 눈치보며 교섭장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비엠아이가 모두 투쟁의 대상입니다.

5월 전국의 원청 자본을 순회 타격한 후 6월 10일 금속노조 전체 확대간부가 총집결하는 투쟁을 진행합니다. 원청교섭 투쟁은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월 15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은 산별교섭 요구 쟁취와 원청교섭 쟁취가 맞물리는 파업이 될 것입니다.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총파업! 고삐를 바짝 잡시다!

### 원청이 책임져라!

#### 금속노조 5월 주요 투쟁



- 1. 포스코 원청교섭 요구 투쟁**  
일시 : 5.12.(화) 10시  
장소 :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
- 2. 현대 모비스가 책임져라!**  
램프사업부 매각 반대 총력 결의대회  
일시 : 5.13.(수) 14시  
장소 :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 앞(역삼역)
- 3. 원청교섭 계기**  
조선소 하청노동자 노조 가입  
집중 캠페인 투쟁  
시기 : 5.18.(월)~5.20.(수)  
장소 :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등 주요 거점
- 4. 원청교섭 불응**  
현대자동차 항의·규탄 결의대회  
일시 : 5.28.(목) 16시  
장소 : 울산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앞
- 5. 원청교섭 불응**  
한국지엠 항의·규탄 기자회견  
일시 : 5.28.(목) 11시  
장소 :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
- 6. 원청교섭 불응**  
현대제철 항의·규탄 결의대회  
일시 : 6월 초  
장소 : 서울 현대차그룹 본사 앞(양재동)

전국금속노동조합

### 현장이야기 6 거부, 무시, 불참... 계속 그럴 수 있는지 보자!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모비스 모듈·부품·물류 5지회, 비엠아이지회가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원청교섭 상견례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된 기업이 달라도 같은 진짜 사장을 향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그대로 기업 담벼락을 뛰어넘는 '초(超)기업교섭'입니다. 원청 자본을 상대한 공동교섭, 공동투쟁은 금속산별교섭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초기업교섭은 금속노조 탄생의 뿌리입니다.

원청 자본이 금속노조와 교섭하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이유는 산별노조는 '묶여(집단화)'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개별 기업(법인)별로 쪼개서 '종업원'으로 통제합니다. 재벌그룹은 본사가 총괄하는 노무관리를 통해 기업별, 고용형태별, 2차·3차 업체별 차별·차등을 굳힙니다. 이것이 원청 자본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단결은 대세이고 승리입니다. 기업별 교섭에 한정된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항할 수록 우리는 더 크게 뭉치고 끈질기게 두드릴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2차 원청교섭 (5/7 울산)



▲현대모비스 1차 원청교섭 (5/8 아산)



▲비엠아이 3차 원청교섭 (5/8 아산)